

국 어

1. 비평하는 글쓰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논거를 활용할 때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을 기준으로 한다.
- ② 서론-본론-결론의 단계마다 필자의 관점을 바꾸어 표현한다.
- ③ 시사 현안 비평문을 쓸 경우에는 문제 상황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수립한다.
- ④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현과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글을 완성한다.

2. 표준 발음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그는 흙과[흙파] 함께 살고자 했다.
- ② 어제는 교통 체증[체증]이 심각했다.
- ③ 한국 사람의 인사말[인산말]에는 정겨움이 담겨 있다.
- ④ 물질적 재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생산력[생산력]이라고 한다.

3. 밑줄 친 어미의 문맥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할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셨겠더구나.

- ① 추측 ② 진행
③ 회상 ④ 주체 높임

4. 다음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산이 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들쭉레처럼 살아라 한다
쑥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산이 날 에워싸고
그믐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
그믐달처럼 살아라 한다
그믐달처럼 살아라 한다

- 박목월, 「산이 날 에워싸고」 -

- ① 자연과 인간의 갈등을 시적 상징물로 구체화한다.
- ②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면서 시상을 전개한다.
- ③ 자연에서의 전원적 삶을 소망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 ④ ‘들쫄레’나 ‘그믐달’ 같은 시어로 화자의 바람과 지향을 표현한다.

5. 다음 조건에 따라 토론 논제를 수정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쟁점이 하나여야 한다.
- 긍정과 부정의 입장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찬성 측의 입장을 담아 완결된 긍정문으로 진술해야 한다.
-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① 주말에 운동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해야 한다.
→ 주말에 운동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면 안 된다.
- ② 교내에서 무분별한 간식 소비를 금지해야 한다.
→ 교내에서 과도한 간식 소비를 금지해야 한다.
- ③ 청소년의 여가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 청소년의 여가 활동으로 적절한 운동을 제안해 보자.
- ④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과 교복 착용에 관련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6. 다음 글에서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도파민은 쾌락, 욕망, 동기 부여, 감정, 운동 조절 등에 영향을 미치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다. 스웨덴 아르비드 칼손 박사는 도파민이 과다하면 조현병이 발생하고, 지나치게 적으면 우울증이 생기는 인간의 두뇌 현상을 의학적으로 규명한 바 있다. 도파민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끊임없이 더 많은 쾌락과 자극을 추구하게 하여 각종 중독과 병리적 현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일정한 감각적 자극을 받으면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그 행동이 습관화된다. 도파민에 휩싸인 뇌가 그 자극에 적응하면, 더 많은 자극을 요구하게 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소셜미디어나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파민 단식에 돌입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인간의 심리적 본능과 취약점을 노린 디지털 서비스 이용 방식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한 도파민 단식 방법은 가능한 한 모든 감각적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기의 사용은 물론 음악 감상이나 격렬한 운동 등의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가벼운 독서와 간단한 스트레칭 그리고 실내 산책 등으로 소일하는 것이다.

- ① 도파민이 과다하면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겠군.
- ② 도파민 단식 방법으로 격렬한 운동을 중단할 수도 있겠군.
- ③ 뇌가 감각적 자극에 적응하면 더 강력한 쾌락을 추구하겠군.
- ④ 디지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인간의 심리적 본능과 취약점이 드러날 수도 있겠군.

7.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재물은 비유하자면 우물이다. 우물에서 물을 퍼내면 물이 가득 차지만, 길어 내지 않으면 물이 말라 버린다. 마찬가지로 비단옷을 입지 않으므로 나라에는 비단을 짜는 사람이 없고, 그 결과로 베를 짜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조잡한 그릇을 트집 잡지 않고 물건을 만드는 기교를 숭상하지 않기에 나라는 공장과 도공, 풀무장이 할 일이 사라졌고, 그 결과 기술이 사라졌다. 나아가 농업은 황폐해져 농사짓는 방법이 형편없고, 상업은 박대하므로 상업 자체가 실종되었다. 사농공상 네 부류의 백성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서로를 구제할 길이 없다. 나라 안에 보물이 있어도 쓰지 않아 다른 나라로 흘러간다.

— 박제가, 「시장과 우물」에서 —

- ① 농업의 성행과 비교하여 상업의 위축을 경고하고 있다.
- ② 상품 공급 부족으로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③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제 활동을 일상생활에 비유하고 있다.
- ④ 다른 나라와 교류하지 않아 기술이 실종되고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8. 다음 글에 나타나는 서술 방식은?

우리는 웹을 더 이상 주체적으로 서핑하지 않는다. 웹에 올라탄 이들을 특정 방향으로 휩쓰는 어떤 조류에 올라탔을 뿐이다. 그 조류의 이름은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이다.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유튜브, 아마존, 인스타그램, 트위터 같은 인터넷 사이트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읽어내고, 그것에 맞춰 특정한 방향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간다.

- ① 예시
- ② 대조
- ③ 서사
- ④ 인용

9.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밀린 대금을 모두 (가) 했다.

○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나) 스러웠다.

(가)

(나)

- | | |
|------|----|
| ① 결제 | 곤혹 |
| ② 결재 | 곤욕 |
| ③ 결제 | 곤육 |
| ④ 결재 | 곤혹 |

10.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편의점이 동네를, 도시를, 그리고 세상을 덮고 있다. 인구 대비 편의점 밀도를 따질 경우 편의점의 최초 발상지인 미국은 물론 편의점의 최대 발흥지였던 일본과 대만을 제치고 대한민국이 목하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편의점 1개당 일일 평균 방문객이 359명이라는데, 이는 하루 평균 880만 명이상이 출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방방곡곡으로 편의점이 확산되는 가운데, 웬만한 길가나 건물에서 편의점을 만나기란 파출소나 우체국 찾기보다 훨씬 쉬워졌다. 시나브로 편의점이 우리 일상에 성큼 들어와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국민 주택이라면 편의점은 국민 점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편의점은 결코 단순한 점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편의점의 시작은 분명히 소매 유통업이었지만, 그 끝이 어디일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태다. 편의점은 일상에 필요한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주변 상권을 흡수 통일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금융이나 치안, 복지 등에 관련된 공적 영역으로도 적극 진출하고 있다. 편의점이 자임하는 문화적 기능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제 일상 대화에서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편의점 창업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간다. 이처럼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편의점은 삶의 일부가 되었다.

- ① 편의점은 한국에서 일상에 가까운 시설이 되었다.
- ② 편의점은 한국에서 미국과 일본, 대만보다도 인구 대비 밀도가 높다.
- ③ 편의점은 한국에서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면서 새로운 진입 장벽에 부딪혔다.
- ④ 편의점은 한국에서 일상 대화에서의 화제가 될 만큼 삶의 일부가 되었다.

11. (가) ~ (라)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가) 자기 재물을 혼자서 쓰는 것은 형체가 있는 재물을 형체가 있는 것으로 쓰는 것이요, 남에게 재물을 베푸는 것은 형체가 있는 재물을 형체가 없는 마음으로 쓰는 것이다.
- (나) 그렇다면 형체가 있는 것을 마음껏 쓰면서도 닳아 없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는 남에게 베푸는 것만 한 것이 없을 테니, 이는 어찌서인가?
- (다) 그런데 형체가 있는 것을 형체로 쓰면 다 닳아 없어지기에 이르나, 형체가 있는 것을 마음으로 쓰면 변하거나 없어지는 법이 없다.
- (라) 형체가 있는 것이 이미 다른 사람의 집에 있으니 도둑이 훔쳐갈까 염려하지도 않고, 불에 타 없어질까 걱정하지도 않으며, 소나 말에 실어 운반해야 하는 수고로움도 없다.

재물을 씌으로써 얻는 아름다운 이름은 죽고 난 뒤에도 없어지지 않고 천년토록 전해질 것이니, 천하에 이같이 큰 이익은 없다.

- ① (가) - (나) - (다) - (라)
- ② (가) - (다) - (나) - (라)
- ③ (라) - (가) - (나) - (다)
- ④ (라) - (나) - (가) - (다)

12. 다음 글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법학자 선스타인에 따르면, “나는 네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집단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강화하며 그곳에 안주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에 몰두하거나 상호 비방만을 일삼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대 의견을 내고 기꺼이 논쟁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생산적인 논쟁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의 의견 스펙트럼은 지금보다 다양해질 것이다. 논쟁이 활발한 사회의 경우에는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이 두껍다. 반면에 의견 양극화와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사회에서는 의견 스펙트럼의 양극단만 보일 뿐 중간층은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사회에서는 집단 간 공유되지 않는 정보가 많아지고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침묵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는 의견이 제시되지 않고 논쟁이 없는 곳이 되기 쉽다.

- ① 논쟁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 쉽겠군.
- ② 의견 양극화가 심화되면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침묵하겠군.
- ③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이 좁다면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군.
- ④ 의견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대 의견 개진을 최소화해야 하겠군.

13.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굽다**¹ 이익을 보려다 도리어 손해를 입게 되다.
- **굽다**² 모양, 생김새, 행동거지 따위가 산뜻하고 아름답다.
- **굽다**³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얼어서 감각이 없고 놀리기가 어렵다.

- ① ‘굽다’¹은 동사이고, ‘굽다’²와 ‘굽다’³은 형용사이다.
- ② ‘굽다’¹은 규칙 용언이고 ‘굽다’²와 ‘굽다’³은 불규칙 용언이다.
- ③ ‘굽다’¹은 ‘주식에 손을 대었다가 도리어 굽고 말았다.’처럼 쓸 수 있다.
- ④ ‘굽다’²의 반대말은 ‘밟다’이다.

14.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정의 동화(同化)가 일어났다.
- ② 영화는 안정된 삶을 지향(知向)한다.
- ③ 철수는 자신의 능력(能力)을 개발하고 있다.
- ④ 두 선수가 진퇴(進退)를 거듭하며 접전을 벌이고 있다.

15.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어린 아우 정대는 이제 겨우 아홉 살인데 타고난 성품이 매우 둔하였다. 언젠가 갑자기 “귀에서 ‘쟁쟁’ 우는 소리가 난다.”라고 하기에 내가 “그 소리가 무엇 같으냐?” 물었더니 “그 소리는요, 동글동글한 게 별과 같아서 눈에 보이기만 하면 주울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였다.
- (나) 글이 잘되고 못되고는 내게 달려 있고 비방과 칭찬은 남에게 달려 있는 것이니, 비유하자면 귀가 울리고 코를 고는 것과 같다. 한 아이가 뜰에서 놀다가 갑자기 ‘왜앵’하고 귀가 울자 “와!” 하고 좋아하면서 가만히 옆 동무에게 이렇게 말했다. “애, 이 소리 좀 들어봐. 내 귀에서 ‘왜앵’하는 소리가 난다. 피리를 부는 것 같기도 하고 생황을 부는 것 같기도 한데 소리가 동글동글한 게 꼭 별 같단다.” 그 동무가 자기 귀를 갖다 대 보고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하자, 아이는 답답해 그만 소리를 지르며 남이 몰라주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 ① (가)의 서술자는 이명을 앓는 아우의 말을 전달하고 있다.
- ② (나)의 서술자는 이명을 앓는 사례로 글에 관한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 ③ (가)의 서술자는 이명을 앓는 인물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슬퍼하고 있다.
- ④ (나)의 서술자는 이명 현상을 통해 독자의 평가는 저자의 의도와 다를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16. 사자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緣木求魚와 같은 일이다.
- ② 그의 말은 羊頭狗肉 같아서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다.
- ③ 刻舟求劍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 ④ 亡羊之歎이라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후회해도 소용없다.

17. 밑줄 친 부분의 예시로 적절한 것은?

국어에서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접미사는 다양한 문법적 특징을 지닌다. 첫째,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어간을 형성하기도 한다. 둘째, 동사나 형용사의 어근에 붙어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셋째,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사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넷째, 타동사에 붙어 피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 ① 소음이 섞여 주위가 시끄러웠다.
- ② 파스한 햇살이 고드름을 녹였다.
- ③ 친구에게 예쁜 꽃을 들려 보냈다.
- ④ 이 옷에 풀을 먹이면 상하기 쉽다.

